

THE BC

BEAUTIFUL CONSUMER, BETTER CULTURE

AUGUST 2013, VOL 160





<The other side of illusion 10030170150520>, 2010 C-print, 100 x 143 cm

최재은 작 현상의 이면

최재은은 조각, 설치뿐 아니라 건축, 사진,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해온 개념미술 작가다. 그녀가 지난 30여 년간 한결같이 다뤄온 주제는 바로 '시간과 생명'이다. 그녀는 주로 식물, 물, 공기, 불, 땅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작품에 사용하는데, <현상의 이면> 시리즈에서는 여기에 '사진'이라는 형식을 덧붙였다. '시간'이라는 주제에 천착한 <현상의 이면>은 깊은 숲 속에 들어가 촬영한 여름 풍경과 멀리서 전체 산을 조망해 촬영한 겨울 풍경을 담아낸다.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장시간 노출로 얻어낸 이미지들은 사진이 아니라 자연이 그려낸 한 폭의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한다. 사진의 형식을 빌어 계절의 변화라는 긴 시간을 하나의 이미지로 축약해 구현한 것.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개념을 시각예술로 표현해온 그녀는 한국인으로서 드물게 현대미술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'비물질성'을 주제로 다루는 작가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.